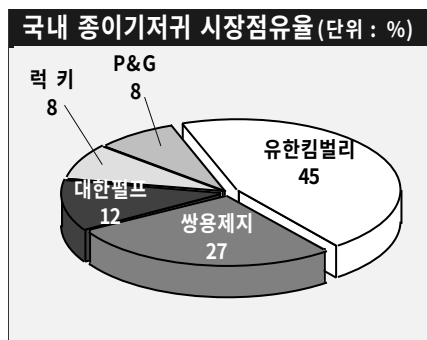


종이기지귀 경쟁 “후끈”

P&G 천안공장 가동 … 가동률 변화 예고

오는 6월 P&G의 공장완공을 계기로 국내 종이기지귀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기기지귀중 종이기지귀 보급율이 40%에 달하고 연평균 2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내수시장 점유율이 8%에 머물고 있는 P&G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수출기지의 일환으로 충남 천안군에 700억원을 투입, 5억개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오는 6월 생산을 목표로 현재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G는 생산량중 30%는 내수에 공급하고 70%는 수출할 예정인데 국내 시장 및 가동률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G는 지난 89년 서통과 합작으로 일본으로부터 종이기지귀를 수입, 한때 점유율이 20%까지 달했으나 91년 5월 종이기지귀가 수입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해 현재는 8%에 머물고 있는데 서통에서 분리, 단독법인을 설립해 본격 생산에 나서고 있다.

P&G는 펄프와 고흡수성수지 등 원자재는 당분간 전량 수입에 의존할 예정이나 추이에 따라 국내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10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2000억으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에서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30억원을 투입, 대전에 1개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제품에 비해 부피가 1/3로 축소된 울트라 슬립을 개발해 현재 시판중에 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인 고흡수성수지를 국내 코오롱유화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쌍용제지는 5억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90%이상의 가동률에 내수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는데 품목의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강화로 점유율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쌍용제지는 원료인 고흡수성수지를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94년을 기점으로 국내 구매를 위해 현재 관련사들로부터 샘플을 납품받아 시험중인데 6월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한펄프와 럭키 등은 국내 추이를 살펴가며 증설 및 판로 개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럭키가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종이기지귀 시장점유율은 유한킴벌리 45%, 쌍용제지 27%, 대한펄프 12%, P&G 8%, 럭키 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격은 보통규격이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개당 1원씩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 및 부담금액 등에 따라 가동률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